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C H A N G

2024
제64호

특집 기획 민선 8기 전반기 문화분야 진단과 평가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정책 현황진단과
한국의 문화정책

광주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인가?

문화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문화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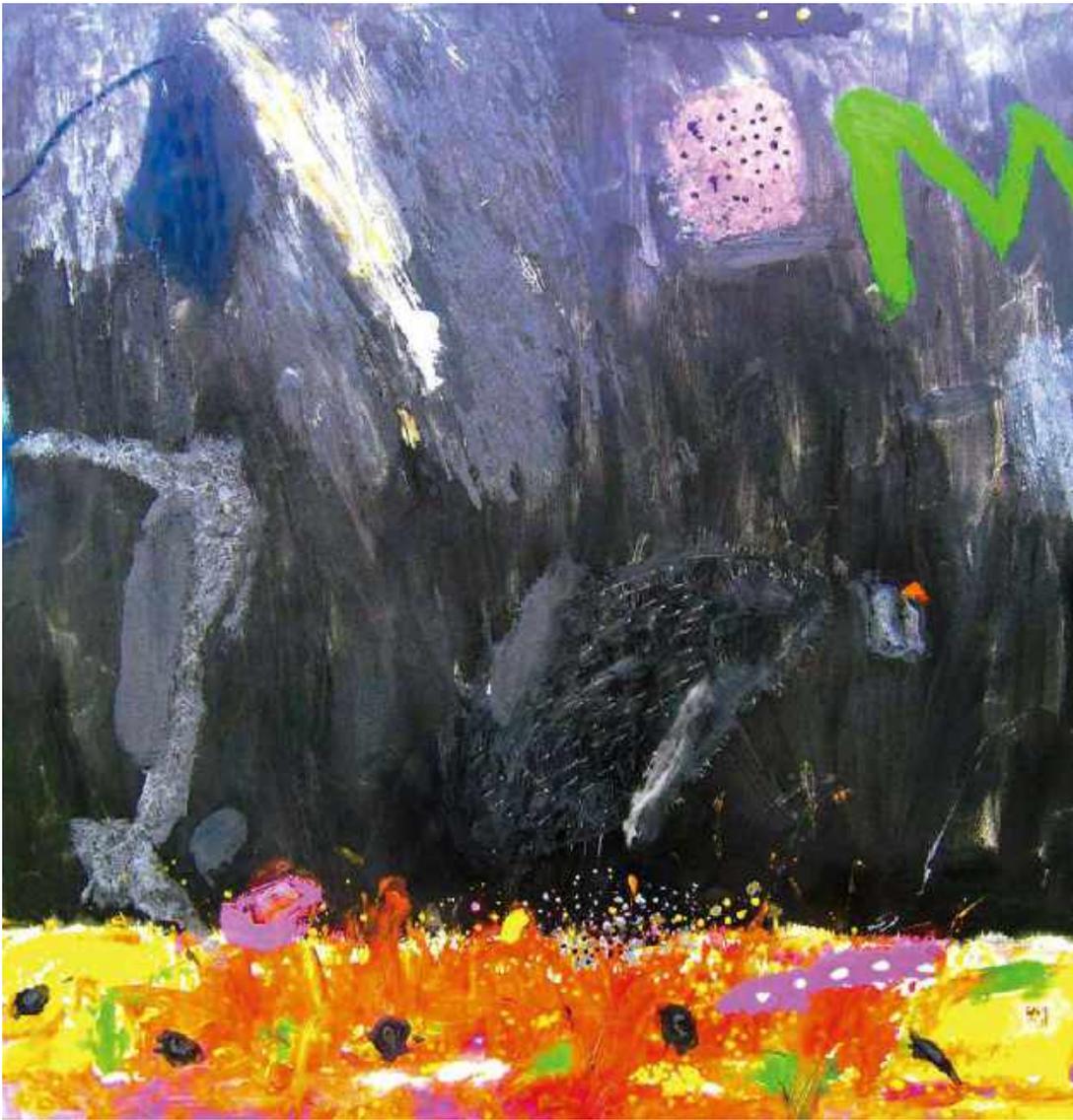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동네봤네

들들의 귀환

맛의역사

어쩌다 오리탕은 광주의 대표음식이 되었을까?



문학

오월 광주와
영화 박하사탕



5. 16. (목)
광산문화예술회관

영화감독 **이창동**

역사

역사가 된 사람들
'아버지의
해방일지'



6. 20. (목)
광산문화예술회관

작가 **정지아**

음악

마음을
담은 클래식



7. 18. (목)
광산문화예술회관

피아니스트 **김용배**

2024 광산 아카데미

2024. 5. - 11.

6회, 8월 제외

오후3시~ 5시 (2시간) **시간**

시민 누구나 (300명 내외) **대상**

무료 **수강료**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평생학습팀(062-960-8284) **문의**



수강신청 QR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

주최 광산구 주관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건축

막과 비움
거칠 속의
세련됨,
세련됨 속의
무심함



9. 26. (목)
광산구청 7층

건축가 **조병수**

건강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축복으로
가는 길



10. 17. (목)
광산문화예술회관

전남대 의과대학교수 **이형연**

디자인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11. 21. (목)
광산문화예술회관

도시계획디자이너 **조용준**

고향사랑 기부제

광주동구

• 광주동구의
벗이 되어주세요!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광주동구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기부자

개인 * 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타인 명의자 등 불가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혜택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제공**
- 세액공제 **기부액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공제



기부방법

- 온라인납부 (고향사랑e음) 방문납부 (농협)



기부하기



답례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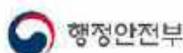
한도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

문의

동구청 기획예산실 062 608 2276, 2277

당신의 따뜻한 기부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동구

산불 예방 수칙



산불 예방법을 꼭 숙지하고 소중한 산림을 다 함께 지켜요.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탐방로 통제 안내 준수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구간 등산로 출입 금지



허용지역 외 취사금지

야외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후 잔불 확인 필수



흡연금지

입산 시 성냥,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실수로라도 불이 번지면 걸잡을 수 없는 피해가 확산됩니다.



광주광역시북구

Follow U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이버 광주음성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호남기록문화유산



발행일 2024년 6월 20일

발행인 김덕진

편집위원장 김옥열

편집위원 박신영 송재환 이현식

편집담당 이지호

발행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주소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금남로 3가), 상호별관 2층

전화 062-234-2727

팩스 062-234-2728

홈페이지 www.rocf.or.kr

디자인 도서출판 심미안

전화 062-651-6968

Contents

창을 열며	
4	파크골프의 열풍에 이유 있는 매력
	문화기행
30	바위가 멈추는 곳
	동네봤네
34	들들의 귀환
	특집 기획
	민선 8기 전반기 문화분야 진단과 평가
6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정책 현황진단과 한국의 문화정책
10	광주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인가?
12	문화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문화인 인터뷰
16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진단
20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문화현장
	문화마실
22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28	'윤상원기념관' 개관
	법 잘 알 오빠
38	법 잘 알려주는 재단 오빠
	포토에세이
40	금지 사회
42	재단 회원소식
46	함께하는 사람들

표지 그림

박홍수, 意境소리-散調, 116×116cm, 캔버스에 수묵 혼합기법, 2024.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동대학원 미술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개인전 40회, 각종 아트페어 25회, 단체전 600여 회 참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 부 교수, 대학원 미술학과 주임교수. 조선대학교 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역임.



파크골프의 열풍에 이유 있는 매력

박철수 재단 후원이사회 부회장

파크골프는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로 가히 열풍이라 할 만하다. 2020년에는 4만 5천 명이었던 등록 회원 수가 2023년에는 10만 6천 명으로 급증했으며, 현재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도 빠르게 조성되고 있으며 비공식 집계로는 6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운영중이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각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는 파크골프 열풍으로 파크골프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파크골프장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풍을 몰고오는 것일까? 그 답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내가 거주하는 곳 인근의 시공원이나 체육공원, 천변 등에 위치해 인접성이 생기면 경기를 중단하고 업무를 본 뒤에 다시

이다. 또한 비용에서도 1인당 25~30만 원의 가까운 거리에서 불과 몇천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쉬워 파크골프장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

경기 방식은 골프와 거의 흡사하다. 4개, 파5 1개)이 기반이지만, 기본 18홀을 돌기도 한다. 골프는 골프장에 가서 기 1시간 30분~2시간이면 넉넉히 18홀을 돈 만큼 한 개의 나무 클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매력 중의 하나는 배 후 경기를 하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배워야 할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력으로 인해 파크골프 이용 연령이 점점 성장 중이며 파크골프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파크골프 인구가 4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파크골프 열풍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크골프 열풍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 소음 문제, 안전 사고 위험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파크골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 안전 관리,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이 중요하며 다양한 연령과 수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이 뛰어나다. 골프와 달리 경기중이라도 급한 일 합류하여 계속 경기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 이용료가 드는 골프와는 달리, 도심과 가까운, 비교적 짧은 코스 덕에 고령층 접근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인 1조 방식이다. 9홀(파3 4개, 파4 4 1게임으로 간주하고 2게임 36홀 이상 본 5시간을 허비하지만, 파크골프는 다. 골프채도 14개를 쓰는 골프와 다 클럽 구입 비용측면에서도 부담이 적 우기가 쉽다는 것이다. 골프의 경우 입문 하지만 파크골프는 바로 배워서 함께 경기

낮아지고 있으며 3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급

-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정책 현황진단과
한국의 문화정책

임영언_ 전남대학교 교수

- 광주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인가?

정양주_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광주민예총 부회장

- 문화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고선주_ <광남일보> 문화부장, 시인

민선 8기

전반기 문화분야

진단과 평가

”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정책 현황진단과 한국의 문화정책

임영언 전남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현황을 진단하는 데 있다. 먼저 한국의 문화정책이 어떤 맥락 속에 변천되어왔는지를 개관하고 문화중심 도시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해방 이후 1970년대 박정희 정권까지는 ‘검열로서의 문화정책’,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까지는 ‘동화로서의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은 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화 부문에서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를 중요한 정책 기제로 삼았고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 매체 산업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 노태우 정권의 문화정책은 문화 분야 전담 독립정책부처인 문화부를 신설하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을 수립하였다. 정책목표로는 문화창조력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산업 진흥이 제시되고 주요 사업으로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문화산업 정책은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문화민주화 차원에서 제시되었다(김기현 2012, 42-43). 한국의 문화정책은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문화관련법 규제 완화, 북방외교 전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제인지도 상승과 문화정책체성의 확립 등 급격한 정

책변화를 경험하였다.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먼저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전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은 1968년 ‘문화공보부 출범’, 체제 유지 및 통제 관리 수단의 성격이 강했고, 문화향유자로서 국민에 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율로서의 문화정책’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문화정책은 1993년 ‘문화체육부 신설’, 문화의 집 건립 등 국민의 문화 향유 사업 개시, 관광문화산업의 문화정책 대상으로의 포용 등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은 1998년 ‘문화관광부 신설’, 예술지원정책의 원칙 수립,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문화예산의 대폭 증액(1%), 문화산업의 집중 등이었다(이동연 2004).

김대중 정부는 문화정책 대선 공약에서 ‘세계 속의 한국문화 창출과 21세기 문화대국 건설’을 국정 목표로 ‘문화재정의 확충,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유산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문화산업 육성’을 내세웠다. 신정부 취임사에서 “전 세계는 물질적인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인이었던 현재의 공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정보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시키고 국민경제로부터 세계 경제 시대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문화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전통문화에 담긴 높은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문화산업은 21세기 기간산업이다. 관광산업, 컨벤션 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이다.”라고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¹ 김대중 정부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창조성에 의해 지식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고용 창출과 국민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1998년~2022년)²

역대 정부	김대중 (1998~2003)	노무현 (2003~2008)	이명박 (2008~2013)
문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10월 일 본 대중문화 개방 문화예산 1% 달성 (2000) 한국 문화이미지 홍보(10대 문화 상징) 검열제도 및 기구 개편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10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디지털융합시대 도래 2005년 문화산업매출 54조 원 (GDP 6.7%) 달성 문화관광/레저시대 도래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 외국 관광객 600만 명 시대 문화도시 조성: 광주, 경주, 전주, 부여, 공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문화바우처, 예술지원제도 개혁 지적재산권 감시대 상국 제외
역대 정부	박근혜 (2013~2017)	문재인 (2017~2022)	윤석열 (2022~)
문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균형발전 스포츠 복지국가 쉽표 있는 삶, 관광 복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전통문화 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가치 제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 한국 건설’을 국정 목표로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 활동 지원, 예술 활동 진흥 등을 제시하였다. 고도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을 10대 성장동력 산업(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지향점은 자율, 참여, 분권이었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핵심은 창의 한국, 새 예술정책(예술의 힘), 문화강국 (C-Korea) 2010 등이었지만, 지향점은 문화예술인의 전문성 보장,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국가적 단위에서 기간산업으로의 육성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문화콘텐츠, 게임, 영상, IT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는 문화도 산업이다,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고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8년에는 국정 목표로서는 ‘세계 5대 문화 콘텐츠 산업 강국 도약’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2011년에는 정책 비전으로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를 2013년 세계 7대 콘텐츠 산업 강국, 2015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창작 인프라와 투자 용자 지원체계 구축, 문화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콘텐츠 진흥체계 일원화 등 문화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김기현 2012, 62-63).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국정 목표를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추진전략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 인재 양성 및 평생 학습체계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은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으로 국정과제는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

1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전문(全文)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132> 3(검색일: 2023/07/21).

2 이 표는 연구자가 본문의 내용을 작성하였음.

광주시 민선 8기 문화정책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발신과 홍보, 즉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의 발굴, 수집, 보존, 시민 공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³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의 창작, 생활, 노동 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 문화 향유를 바탕으로 한 생활문화의 증진, 문화산업계의 공정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 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⁵

1993년 문민정부에서 전개되었던 문화산업육성 전략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력히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문화정책은 정부 간의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문화 향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보편적 문화복지 등 거의 유사한 정책들이 전개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3. 광주광역시 민선 8기의 지역문화정책 현황진단

그러면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출범으로 수립된 문화정책 분야 중에서 문화 분야 과제만을 도출하고 공약에서의 문화정책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시 민선 8기 2024년 공약실천계획에서 문화정책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의 시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속에 “문화중심 기회 도시 조성”,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 “영산강 Y 벨트, 복합쇼핑몰,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건강 도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주시 5대 공약 중에도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민선 8기 문화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광주시 시정 목표는 13개 공약과 3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정책 관련은 4개 공약의 11개 세부 사업이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2-5):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국제공연예술축제 개최, 전문예술극장 조성,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생태계 강화(2-6): 예술 창작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미술관 소장품 수집연구시스템 혁신, 아시

3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 <https://culturalaction.org/39/?q=YToyOntzOjE5Y0iJrZXI1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jk7fQ%3D%3D&bmode=view&idx=3851155&t=board>(검색일 2024. 06. 07.).

4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https://brunch.co.kr/@culturalaction/81>(검색일 2024. 06. 07.).

5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https://news2.ifac.or.kr/2019/>(검색일 2024. 06. 07.).

6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현황 https://www.gwangju.go.kr/home/newgjmayor/down/2024/mayor_file002_240429.pdf(검색일 2024. 06. 08.).

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착(2-7): 아시아문화 ODA 및 웹툰 애니 공동제작 유통, 아시아국가교류 프로그램 운영, 문화산업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2-8): 송암 디지털콘텐츠 단지 및 창작환경 조성, 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 센터 운영, 시네마테크 조성 및 영화산업 전담 기구 운영” 등이었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 문화정책 세부과제〉

5대 시정 목표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잼도시
 - 영산강 Y 벨트
 - 복합쇼핑몰
 - 문화·예술·건강 도시

13개 공약과제 36개 세부과제

- 시민 여가 공간 “익사이팅 존” 조성 사업
- 현장 기반 관광 산업도시
- 글로벌 마이스 도시
-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착
- 문화산업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
- 스포츠 건강 도시 조성(체육시설 공유시스템 구축)

4개 공약 11개 세부 사업

-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국제공연예술축제 개최, 전문예술극장 조성, 생활문화 아트벙커 운영
-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생태계 강화
 - 예술 창작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미술관 소장품 수집연구시스템 혁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착
 - 아시아문화 ODA 및 웹툰 애니 공동제작 유통, 아시아국가교류 프로그램 운영
- 문화산업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지원
 - 송암 디지털콘텐츠단지 및 창작환경 조성, 국제게임쇼케이스 및 QA 센터 운영, 시네마테크 조성 및 영화산업 전담 기구 운영

전반적으로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에서 있어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 기회 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 체감형 문화정책’의 추진을 목표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와 국제적 미술 도시 도약,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와 문화랜드마크 건립, 광주공원 청춘 문화 누리터 운영” 등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회 구축과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중심 기회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의 발신과 홍보, 즉 광주광역시 문화유산의 발굴, 수집, 보존, 시민 공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은 전반적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의 유지가 문화의 선도와 성공 여부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에 맞춘 문화정책의 변화로 정책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일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년 진행 중인 정책 전반에 관해 공약실천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는 1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추진 일정, 소요 예산, 확인 지표, 추진실적, 기대효과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정책수행내용과 일상 생활문화에서의 간극과 피드백 내용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문화 관련 지원정책과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정량화와 계량화를 통한 공약실천계획과는 별도로 공약 평가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이 반영된 운영 결과 보고서가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변화와 권리를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문화정책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시민 체감형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문화중심 기회 도시 조성으로 지역문화와 예술의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 더욱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인가?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광주민예총 부회장

민선 8기의 문화예술정책은 이전과 큰 차별성이 없다. 2024년 전체 예산에서 문화체육실 예산 비율이 4.92%에 불과하며, 광주문화재단 예산도 큰 변동이 없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 담당자들은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기획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술가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그들이 문화예술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질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광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들과 청년 예술인들과 면담을 통해 이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해 보았다.

광주는 예술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예술인은 많지 않다. 이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소수의 명망성 있는 예술가들을 제외하고는 늘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광주'라는 지역적 특성 아래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광주가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몇 가지 큰 장점을 언급했

다. 예술가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활발하다는 점과 지역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중의 높은 참여 의식이 작품 창작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연결된 자연환경이 창작에 여유로움을 준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았다.

예술가들 사이의 협력과 연결은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심리적 동질감을 통해 고립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예술소비자의 역할도 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은 예술 활동에 대한 긍지와 지속력을 갖게 한다.

광주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예술가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광주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공평한 분배와 다수에 대한 지원은 집중성이 약해, 광주를 대표할만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친 특정 분야나 단체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자생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문화재단의 '예술로' 사업과 같은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은 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유지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며,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인을 만날 수 있고, 시민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문화예술활동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세대 연결의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경제적 이유로 새로운 기획과 사업 진행이 어려워 연례적인 대응 활동이 많으며, 신진 예술가들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연결하여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사업이 부족해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히 우려할 만한 문제다. 청년 예술가들은 지역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지 못해 대부분 떠난다. 그 결과, 비교적 큰 기획의 객원 모집에 수도권에서 내려와 일회성 활동 후 떠나버리기 때문에 지역은 계속 고갈된다. 청년기획자 양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를 기를 수 있도록 청년예술가들의 교육 및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광주 예술의전당은 이전의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창작과 공연 활동을 위해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객원 단원들에 대한 처우와 연습 지원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공연 연습 기간 동안 상임 단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광주 시민들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예술의전당이 있고, 비엔날레가 미술과 디자인 부문에서 열리며, 전시장, 공연장, 각 자치구의 문화예술 회관 등의 시설도 많다. 크고 작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열려 문화도시 혹은 예향이라는 이름에 부족함이 없다.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어 문화 향유 기회도 많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의 예술인들은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광주는 다양한 예술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가 많은 도시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신진 예술가들의 교육과 지원을 강화



민선 8기의 문화예술정책은 이전과 큰 차별성이 없다. 이는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담당자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기획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 예술가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다.

하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선 8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10년 후까지 지속될 장기적인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문화민주주의 실현되고 있나

고선주 <광남일보> 문화부장, 시인

민주주의는 정치 맥락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군부독재에 시달렸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상당수 국가들이 독재에 시달려 왔던 것처럼 말이다. 현재 미안마 같은 곳은 정치맥락적 민주주의에 대한 항거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사전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하며, 기본적 인권과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보통의 경우 민주주의가 됐다는 의미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먼저 지칭한다. 정치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가 쟁취된 국가는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를 갈구하기 마련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쟁취되고 그것이 안착되기 시작하면 사회 각 분야별 폐단을 혁신하고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한다. 이를테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그 대표적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지층이 존재한다. 합리적 생산과 합리적 소비, 그리고 그것을 균등하고 체계적이며 설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및 조례를 망라한 각종 규범이 정립될 때 문화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민주주의는 학술적 규정을 벗어나 일상 공간에서 논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아무래도 김대중(DJ)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다. DJ 정부 시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예술 향유는 지속적이었다기 보다는 단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중 콘서트나 전람회 1~2회 보는

것으로 문예활동에 대한 향유가 대충 정리됐다.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사는 정도가 중산층 정도가 돼야만 가능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보니 ‘문화비’라고 하는 지출을 별도로 산정해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로도 경기침체나 물가 인상 폭에 따라 문화비 지출은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 대신 이때는 공공의 문화비 지원 등이 등장하기 전이어서 지자체를 위시로 한 관의 간섭 또한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다.

사실 ‘문화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진단 이전에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다. 혹은 문화민주주의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터다.

최근 들어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닌 지원주체로만 그쳐야 할 행정권력이 지목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왜 그럴까. 지원하는데에서 그쳐야 하는데 그 지원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넘어서 버리기에 발생된다. 이처럼 지원주체의 과도한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 상상력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한 문화예술의 경직성을 불러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초래한다.

문화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팔 길이 원칙’이다. 요즘 10대와 20대, 30대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 있다. 다만 MZ 세대들에게 ‘한류’가 낯설지 않은 것처럼 ‘팔 길이 원칙’은 기성세대에게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 한류 현상의 단초, 시금석, 출발점, 물꼬 역할을 한 근거가

‘팔 길이 원칙’인 것이다.

‘팔 길이 원칙’은 국어 사전에도 올라 있는 용어다. 사전적으로 정부가 특정 기관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율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개념 자체는 쉬워 보여도 문화현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만큼 지원주체의 간섭이 시시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생겨난 용어일 것이다. 이 ‘팔 길이 원칙’이 시도되던 시기는 대체적으로 DJ가 집권하던 시절(1998~2003)로 대체적으로 수궁한다.

DJ 정부는 철저하게 ‘팔 길이 원칙’을 고수했다. ‘팔 길이 원칙’이 정립되고 고수되면서 오늘날 한류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자면 정책이나 행정이 문화눈높이에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투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명제를 실천하다 보니 문화예술의 근력이 살아나게 되면서 세계화의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됐다. 한류라고 하는 것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데는 문화예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근래들어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지원은 적게 하되 간섭은 많아 한다’로 바뀐 듯한 형국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화돼온 문화예술행사 도록이나 팸플릿, 안내장 등에 지원주체가 주최자로 등장했다. 이는 지자체가 주최자로 명기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으면서 지원처가 주최자로 혼용되는데까지 이르렀다. 관련 행정의 남용과 왜곡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왜 그렇게 명기했냐”고 물으면 상당수 관련 단체는 “명기하지 않으면 시청이 싫어한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가령 음악회가 마련되고 있는데 무대에 조명 하나 옮기지 않는 등 손 하나 까딱이지 않았으면서 예산을 쥐고 있는 지원처라는 막강한 권력을 내세워 주최자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

주최자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 여는 사람을 일



정치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가 쟁취된 국가는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를 갈구하기 마련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쟁취되고 그것이 안착되기 시작하면 사회 각 분야 별 폐단을 혁신하고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한다. 이를테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그 대표적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 생산과 합리적 소비, 그리고 그것을 균등하고 체계적이며 설득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 및 조례를 망라한 각종 규범이 정립될 때 문화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다.

DJ 정부는 철저하게 ‘팔 길이 원칙’을 고수했다. ‘팔 길이 원칙’이 정립되고 고수되면서 오늘날 한류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류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데는 문화예술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들어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견는다. 그런데 예산만 내려줬으면서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해 여는 사람으로 둔갑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것이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팔 길이 원칙이 정착돼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시대에 역행하는 제약과 간섭을 노골화하면서 건강하던 문화예술의 근육은 약화됐다. 언제까지 약화될지는 모른다. 거듭해 약화되면 언젠간 병자의 몸이 되고 말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오랜 동안 문화운동을 펼쳐온 화가 출신 C씨는 “지자체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행정이 주도하려 들면서 문화민주주의는 해체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 군사정부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K-POP 등 한류 기반을 DJ정부 때 닦아놓아서 세계적으로 한류가 가능했다. 지금은 반대로 정

치가 문화예술을 억압하고 간섭한다. 행정 편의주의로 가려하는 대표적 사례다. 예전 군부독재가 주민 억압하는 것과 같다”면서 현시대 문화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C씨는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편의주의가 심화되면서 엄청나게 체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행정 주도로는 문화자율성을 1%도 진전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이 방해꾼 역할을 하다보니 문화생태계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사회 최대의 문화예술브랜드는 ‘광주비엔날레’다. 다행히 전임시장 때까지는 시 관계자가 대표이사과 사무처장을 맡는다는 내정설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현시장 들어 임기만료전인 대표이사과 사무처장 자리에 시 관계자가 내정됐다는 내정설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문화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광주비엔날레는 6월초 기준 내정설에 휘말린 대표이사과 사무처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논쟁거리가 됐다. 8월 하순 임기가 끝나는 대표이사가 만료전임에도 내정설이 파다하게 전파됐던 것이다. 물론 창설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15회 전시가 끝나는 12월까지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내용의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다 사무처장과 홍보마케팅 부장, 전시팀장 모두 공석 상태다. 이들 직분 중 사무처장 역시 시 관계자 내정설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쟁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이처럼 행정권력이 자율성을 쫓피고 있는 문화기관의 자리들을 독식하려 하는 순간, 그 문화기관의 위상은 급전직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비엔날레의 사례가 문화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파괴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대표이사 선임이 완료됐지만 선거 캠프 인사가 최종 낙점되면서 캠프 사람의 일자리 창출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사권자는 공모절차를 밟았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관례를 따랐다고 항변하겠지만 공모에 응한 문화전문가들은 들러리 역할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차후 능력좋은 문화전문가라 하더라도 선거캠프를 참여해야

팔길이 원칙 (ARM'S LENGTH PRINCIPLE)



만 대표이사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어 쓸쓸하다.

그렇게 법과 제도는 허점을 고스란히 꺼안고 있다. 따라서 복수로 올라가는 최종 후보 선정 방식을 제도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아무리 문화예술계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도 시장 사람이 아니면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인사가 도전장을 내밀어도 인사권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처럼 문화민주주의 파괴는 법과 제도의 허점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허점을 지방의회든, 국회든 빨리 손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할수록 문화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시대는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다. 미래 산업은 대표적으로 AI 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중 서비스산업 핵심이 문화예술관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까지 영향을 끼칠 문화예술에 대한 근육 키우기는 행정의 간섭이 아닌, 자율을 법적으로 최대한 보장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할때 문화예술의 숨통은 트일 것이다. 그 숨통의 트임은 문화민주주의의 건강한 척도이자 기능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지역에서 재단 역할 중요성 새삼 확인 임기 2년안에 500억 기금확보”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인터뷰어_ 김정희(시인)



김정희 지난 5월 1일 취임식을 하신 걸로 압니다. 이제 갓 한 달을 넘기셨는데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은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정책이나 현장 실무에 있어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임되셨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행정을 구현하는 최전선의 기관입니다. 이곳의 수장으로 한 달 남짓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은?

노희용 대표이사 한 달 동안 지역 유관기관 대표자, 언론사 등을 만나 재단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지역에서 재단의 역할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재단의 역할에 대해 공통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지역 문화예술기관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지역의 많은 행사들을 문화예술행사의 주체인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다.

재단 직원 숫자는 23명(2011)에서 102명(2024)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한 단계 도약해야 하는 시기로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도약하는 과정 속, 필요한 건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내가 재단의 대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면 한다. 재단에 소속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조직의 역량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대표님에 대해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시다, 아니다 정치인이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임기 중 다시 선거에 출마하실 수 있어 조직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등, 실제로 제가 대표님을 나무위키나 다음 백과에 검색해보니 ‘노희용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이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활동한 이력은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시 문화수도정책관문화관광정책실장 등 문화행정인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재단 2년 임기기간동안 정치인 노희용으로 복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그동안 정치적 활동에서 기른 역량이 재단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재단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치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국회의원 등 도움을 받아 광주문화재단 예산, 광주의 문화예술예산을 증액시킬 것이다.

임기기간동안 선거도 없으며, 설령 다른 선거가 있다 해도 선거 이후보할 계획은 전혀 없다. 정치인이 문화행정과 무관하기 보다는 재단의 역량이 한 단계를 오르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단은 업무가 매우 많습니다. 문화가 방대해서 그렇고 점점 문화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업무의 범위와 사업의 수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칫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두리번거리다 2년이 금방 흘러가버릴 수 있겠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임기 동안 가장 주안점을 두고자 하시는 일은?

문화예술의 주체는 시민 그리고 예술인이다. 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해 주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문화에도 경제론이 필요하다. ‘수요(시민)-공급(예술인)’ 사이의 문화시장의 판을 재단이 조성하여 끊임없이 가동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

문화재단은 2가지 주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 첫째,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둘째, 시민문화향유권 지원이다.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물들은 시민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이 있는 문화 시장이 필요하다.

광주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14년이 지나면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예술 복지, 소통 교육, 시민문화,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혜자가 체험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있었는데요. 문화예술은 표현 방식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아이디어나 창의적 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정서적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재단의 지원 정책, 투자방향은?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지원, 시민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축제행사, 공공문화시설 운영 등의 고유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4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단은 문화정책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시민과 예술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해 시와 정부에 제안하려고 한다. 아울러 ACC,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비엔날레 등 광주의 공공 문화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지역 정치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재단 사업의 활성화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체자금의 부족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문화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재단이 중심적 역할을 하시겠다 대표님이 취임사에서 밝히셨습니다. 재단 기금액의 획기적 증액도 있었는데 구체적 방안은?

현재 재단 기금은 111억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500억 달성을 위해서는 임기 2년 안에 400억원을 모아야 한다. 500억원 모금에 대한 방법은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세일즈 마인드를 펼쳐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와 시청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단의 설립목표를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기금확보가 절실하다. 기금 사용은 매년 소진하는 단기간 사업이 아닌 재단의 설립목적 부합한 사업 발굴과 또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형 공연 제작 등 장기적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치분권 시대에 문화분권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외에 조례는 제정돼 있으나 관련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충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방안은?

500억 기금확보는 광주시의 지원이 중요하며, 기업,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문화재단의 예산 뿐 아니라 광주의 문화예산을 증액시킬 예정이다.

또한 문화메세나 사업을 통해 기부를 장려하고 기업인과 예술인의 만남을 주선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려 한다. 지역예술인은 창작활동 후원을 받고, 기업은 세액공제와 사회기여, 시민은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향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문화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문화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무늬만 문화경제부시장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효율성 등 앞으로 광주시와 정책상 이견이 있을 때 대표님의 솔루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구체화되면서 광주는 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문화경제부시장 개념이 생겼다. 경제와 문화는 따로 구분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구조를 탄탄히 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시민의 문화소비력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이다.

공직생활을 하며 문화행정가로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고, 친화력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왔다. 시-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재단은 물론 우리시의 문화정책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보조금에 대부분을 의지하는 재단의 여건은 재량이 제한되어 다년도 사업이 어렵고 이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져 관련분야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 취임 후 많은 부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로 취임 후 당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적극적 문화생태계 조성에 대한 대표님의 특별한 방안은?

문화생태계는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상품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인이 있고, 그것을 향유하고 소비하고 시민이 있다. 재단은 시민과 예술인을 매개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재단은 생산자인 예술인을 위해 창작지원금을 확대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해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이 행사장을 즐겨 찾도록 예술콘텐츠를 잘 선별하고 홍보강화에 힘을 예정이다.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복잡성은 문화예술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지원 체계 자체를 바꾸기 위한 단기적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만 보아도 안식년제, 이중 정산 시스템, 소액 다건 주의 등 공급자 중심의 보조금 지원 시스템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고충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안정적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은?

재단은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 지원행정으로 현장 맞춤형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예술지원 교부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발생하



는 현장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행정을 펼쳤다. 당초 개별 공모 실시하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합 공모로 전환하여 심사 및 공모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추진, 문화예술인들이 조기에 창작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다년간 집중지원 방식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및 원로, 전문, 신진 생애주기별 현장 맞춤형 창작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지원 층위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규모 및 장르별 특성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예산차등 지원, 상시적 현장의견 수렴교육 컨설팅 등 간접지원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맞춤형 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일회성,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지원 방식을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재단은, 앞으로도 예술인,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확충해 갈 계획이다.

〈에필로그〉

『곰돌이 푸』에서 「푸」는 “오늘은 무슨 날이야?”라고 묻는 「피글렛」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푸」가 즐겨하는 매일 매일의 긍정 주문입니다.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문제도 때로는 어려운 해법이 요구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주제를 피해가지 않는 답변으로 인터뷰 내내 흥미진진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노희용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환한 미래를 펼쳐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장애인의 시선으로 본 문화현장

정진삼 (사)광주장애인문화협회장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문화 예술지원정책은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에 의해 육성과 결과산출을 통한 비전을 제시해야함에도 아직도 우리 문화예술 정책의 대부분은 '고기를 기르는 방법보다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표면적이고 순간적인 정책이 주를 이루는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문화예술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문화예술 향유권을 갖고 있는 권리주체인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가 없는 정책의 문제와 지원체계가 원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는 첫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문화향수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창작활동이나 참여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 당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문화 예술정책이 부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정책발전 중장기 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예술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따라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안 대응적이고, 사업 중심적인 방향으로 지원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장애인 당사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문화 예술활동의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고 삶의 질 향상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장애의 유형별(15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장애당사자가 갖는 심리적, 행태적인 면에서 향유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그 프로그램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

에서 볼 때, 정책은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러한 취약성은 장애인문화예술의 지원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와 기관이 하나의 협력체계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각각 산발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시적 결과(효과) 측면에서 깊이가 부족하고 효율성면에서는 예산 및 자원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문화욕구와 권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예술인에 대해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권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창작자로 이끌어 예술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예술인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노력이야말로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사회이념을 다듬어나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앞에서 장애예술인 정책과 육성,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몇 가지 쓴소리를 나열하였으나 무엇보다 장애인이 힘들어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외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그들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외형적 편의제공이나 시혜적 차원의 일시적 지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가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형성되어야 하듯이 문화적 권리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깊게 드리워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



식 및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도 당당한 문화향유의 주제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의미를 폭넓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을 미술음악 등 장르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스포츠관광여가 등의 일상의 문화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일상의 문화예술 활동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장애문화예술인도 전문적인 창작의 주제로 제대로 된 평가와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의 체제는 문화의 향유자인 장애인 당사자와 가정이라는 전제 아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정부정책이 문화의 소비자 또는 향유자 보다는 생산자 또는 창작자 위주로 흐른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여백이 부족한 현실이며, 문화향유의 주체로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지원은 지역의 지자체를 기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도 중앙 위주에서 지방 또는 지역으로의 이양이 시도되어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는 속성상 일정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거창한 전국적 계획 못지않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피부에 와 닿는 문화예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은 장애인 문화예술의 핵심 사안이다.

문화예술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좁은 의미의 문화예술만이 아니라 체육,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개개인이 향유할 권리이자 국가입장에서는 엄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에서만 아니라 개개인의 문화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자기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임은 물론이다. 자신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예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얻음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되는 값진 경험을 갖게 된 것은 장애인 문화예술이 단순히 기본적인 논제를 떠나 실제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위기의 시대에 시민에게 길을 묻고 시민과 답을 찾아가기 위해 마련된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인문예술 축제.
그날의 뜨거웠던 현장 이야기.





은 가족이 행사를 통해 희망이란 빛을 채우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발생하는 노사갈등, 양성평등,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세계에 오월정신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_ 시민작가 김명화





이번 행사에 시민작가로 12살 아들과 함께 참여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저 역시도 역사의 한 부분을 되새기고 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지만 광주를 말하고 싶은 마음, 광주를 알리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어요.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광주 시민이라는 것에
 큰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갑니다.

_ 시민작가 이지혜





우선 좋은 행사를 기획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딸과 저는 이 행사를 제대로 즐겼답니다.
 날씨가 더웠고, 바닥에 앉는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린 그림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덕분에 제 딸과
 저의 주말 오후가 아주 새롭고 의미있었습니다. _시민작가 Lisa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정신 토크쇼와 오월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유명을 달리한 의로운 희생의 가치를 알 수가 있었고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_ 시민작가 하유담



‘윤상원기념관’ 개관

조계현 윤상원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윤상원기념관 전경

8년 만에 드디어 ‘윤상원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윤상원열사 생가가 있는 천동마을에서 지난 4월 17일 역사적인 ‘윤상원기념관’개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윤상원 열사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광산구청장,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 외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다. ‘윤상원기념관’ 개관은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예산 마련에 들어간 시점을 고려하면 8년여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다.

광산구청은 현 민형배 국회의원이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광산 차원의 다양한 윤상원 열사 추모사업을 추진했었다. 임진택 작창의 ‘판소리 윤상원 가(歌)’, 하성흡 작가가 수묵으로 그린 ‘윤상원 일대기’ 등은 모두 광산구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역작이다. ‘윤상원기념관’은 이러한 광산구청의 윤상원 열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윤상원 열사의 삶을 온전히 조명하고 열사 정신과 5월 정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17일 기념관 개관식



기념관 내부 전경



님을 위한 행진곡

‘윤상원기념관’은 광산구청이 구비 5억을 마련하여 초석을 놓았다. 이에 화답하여 윤석동 윤상원열사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전답 320평을 광산구에 기증하셨다. 여기에 정종호 천동마을 통장께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마을회관 터를 기부채납 해 주었다. 이후 민형배 의원 주도로 행정안전부 교부금이 추가 확보되었다. 여기에 광산구와 광주광역시의 교부금이 추가되면서 건립에 속도를 내게 되었다. 원활한 건축을 위해 ‘윤상원기념관 건축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윤상원기념관 건축 자문위원회’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진행 과정에 자문 역할을 하며 ‘윤상원기념관’ 건립에 열과 성을 다했다.

‘윤상원기념관’은 연 면적 591㎡, 2층 규모로 1층 기획전시 공간과 2층 상설전시 공간 등으로 이뤄졌다. 1층에는 윤상원 열사의 전신상이 설치되어있으며 2층 상설전시 공간은 그의 삶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물 등을 전시한다. 2층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시설도 마련해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겸하고 있다. 개관 전시로 하성흡 작가의 수묵으로 그린 윤상원 일대기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윤상원 열사의 유년기부터 들불야학 시절과 5·18 항쟁참여,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으로 부활한 열사의 삶을 수묵채색으로 그린 12폭 기록화로 전시장을 채우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윤상원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시민군 대변인으로

항쟁에 참여하고 항쟁 마지막 밤 도청에 남아 산화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그의 선택된 죽음으로 항쟁으로 완성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포책임자가 규명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를 기념관에 오롯이 담을 수 있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기념관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이들이 힘을 모았다. 이 정성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기념관 운영이 되길 바란다. 특히, 미래세대가 이 공간을 통해 5월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5·18민주화운동은 이제 광주만의 것이 아니다. 전국화는 물론 세계에서 주목하는 민주·인권·정의의 상징이다. 이에 대비하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상원기념관’은 5월 정신의 또 다른 메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윤상원기념관’이 세상에 빛을 보는데 남다른 헌신을 해 주신 광산구청 문화예술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윤상원기념사업회는 ‘윤상원기념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창안, 발굴하여 더욱 풍성한 윤상원열사 추모사업과 5월 정신 계승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바퀴가 멈추는 곳

- 자전거 국토 종주길

이현식 이현식멘토스쿨원장

“랑데자뷰”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어 “랑데뷰”와 “데자뷰”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만남을 뜻하는 “랑데뷰”와 “기시감”(既視感 : 처음 온 장소인데 이미 와 본 듯한 느낌)을 이르는 데자뷰,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더해 ‘첫 만남이지만, 익숙한 장소나 물건’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제게 이 “랑데자뷰”란 말은 ‘자전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4년 전쯤, 많은 망설임 끝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한가한 날을 잡아 영산강 자전거길로 나갔지요. 상쾌한 바람, 싱그러운 풀 내음이 온몸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안장 위에 앉아서 페달을 구르니 양옆으로 지나가는 영산강의 풍경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던 듯한 장면. 그때 문득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랑데자뷰! 맞아 이 느낌, 어디에선가 느껴 봤었어!”

이 용어는 제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어릴 적 자전거에 대한 추억과 연결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신 자전거는 저의 재산목록 1호였습니다. 자전거만 있으면 놀이터로, 산으로, 들로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달리며 느끼는 컷가를 스치는 바람은 또 얼마나 시원했던지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동네 어귀 놀이터 뒷길을 달리는 소년이었던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아련한 느낌을 뭉뚱그려 놓은 물건, 오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나타나 순식간

터질듯한 허벅지 근육의 통증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쓰라림은 오르막 내내 자신들의 위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찾아들어 고통해져는 순간에 비로소 나타나는 정상 모습은 우리를 환 호하게 했습니다.



낙동강 하구둑 인증센터



남한강변길

에 오감을 사로잡는 익숙함을 가진 실재(實在)적 존재, 그게 저에게는 바로 자전거입니다. 그렇게 자전거에 대한 저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무더운 7월 여름.

드디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의 긴 시간이 끝나고 맞이한 5일간의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휴가 첫날 아들과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 위에 있었습니다. 버스 짐칸에 나란히 두 대의 자전거를 실은 채였죠. 몇 달 전부터 계획해 온 '자전거 국토 종주'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마냥 가슴이 뛰었습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묘하게 뒤섞여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버스에는 아빠와 아들이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10대 소년 두 명이 광주에서 인천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종주 자전거길은 4대강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 종주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등 총 12개의 자전거길이 더해져 총연장이 1853km에 이릅니다. 각 자전거길 중간중간에는 인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증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12개 구간별 인증, 둘째 4대강 종주 인증, 셋째 국토 종주 인증 그리고 넷째 전국 총 85개 인증센터 모두의 인증도장을 받는 그랜드슬램 인증입니다. 이번 우리 부자가 경험한 국토 종주는 인증 종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총 633km의 자전거길입니다.

다른 인증과 구별되는 국토 종주 인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길은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도, 경상도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를 종으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각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숨은 명소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큰 행운이기도 합니다.

광주에서 밤 버스를 타고 새벽에 도착한 우리는 인천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 자전거길 인증센터로 향합니다. 새벽 3시에 자전거로 인천 시내를 관통할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색적 느낌을 선사합니다. 모든 것이 잠든 고적한 도시의 풍경과 코를 스치는 새벽공기의 향이 앞으로 펼쳐질 신비한 자전거 여행의 복선처럼 느껴집니다.

첫째 날은 인천에서 여의도를 거쳐 독섬, 광나루, 능내역을 지나 양평까지 가는 120km 여정입니다. 어제 버스에서 쪽잠을 잔 터라 점심때가 되자 졸음이 쏟아집니다. 온도계의 온도는 38도, 인내심이 말라가고 체력도 바닥을 보이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인증 부스가 안 보입니다.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았지만, 허탕이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양평까지 한참 남은 데다, 오늘 내로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이런 아빠



삼랑진

와는 다르게 아들은 휴대폰에만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육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어금니 주변 근육을 수축하며 말합니다.

“아들, 아빠가 지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오늘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아. 그런데 인증 부스 찾느라 에너지를 너무 써버렸어. 아빠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네가 좀 도와주라.”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평소 아빠가 이렇게 애절한 표정으로, 도움을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으로 한계에 이른 아빠의 절박함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느껴졌나 봅니다. 아이는



부산 낙동강 하구둑

당장 휴대폰 구글맵을 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함께 찾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허무하게도 우리가 해매던 반경 약간 밖에서 인증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이심전심, 염화시중의 미소가 이랬을까요? 참 오랜만에 마음을 활짝 연 채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맘껏 웃었습니다.

둘째 날, 이포보, 강천보를 지나 비내섬과 충주 탄금대를 거쳐 수안보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역시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속도가 비슷한 여행자끼리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얼굴을 익히기 마련입니다. 목마를 때 그늘에서 음료라도 나누게 되면 금세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커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아들에게 실제 헬리콥터 조종사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늘에 앉아 담소는 나누던 중에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마침 하늘을 지나던 헬기를 보며 정확한 기종과 임무 등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여러 내용을 아이에게 들려주던 그분은, 알고 보니 실제 헬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자기가 꿈꾸는 조종사를 만난 아들에게 이번 국토 종주는 하나의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 위의 인연, 우리는 자전거가 선으로 그어낸 또 하나의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소조령과 이화령고개였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각각 3km와 5km 연이어 있는 극악의 코스입니다.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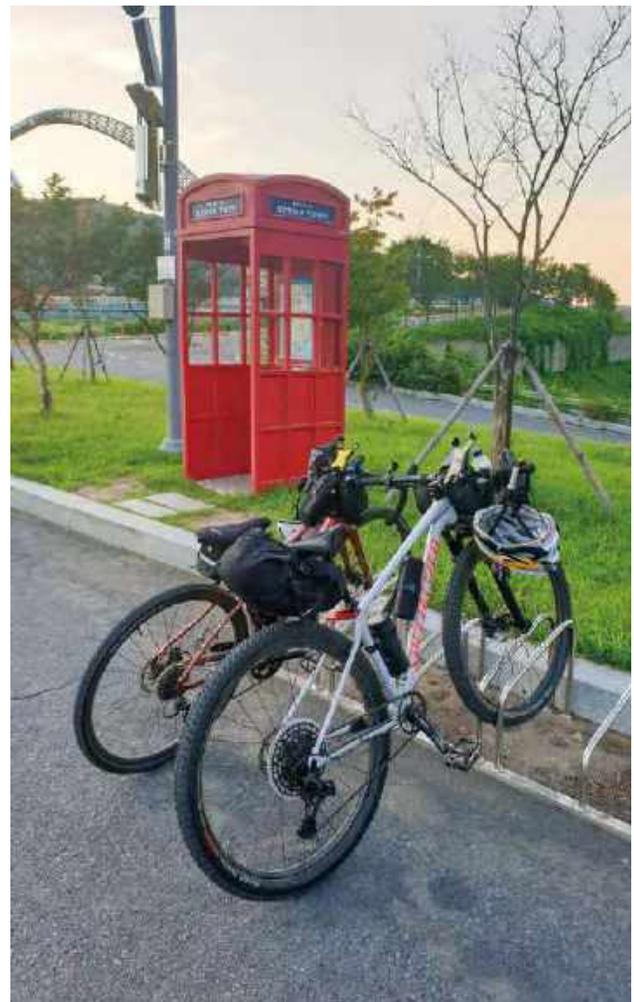
새재 자전거길 이화령 정상



이화령에서 내려다 본 풍경

의 고난을 8km에 압축이라도 할 요량인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힘들게 합니다. 자연에 내던져진 인간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힘든 대로 땀 흘리고 아픈 대로 참아내야만 합니다.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하고 함께 고향도 지르며 오르고 또 오를 뿐이지요. 터질듯한 허벅지 근육의 통증과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쓰라림은 오르막 내내 자신들의 위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잦아들어 고요해지는 순간에 비로소 나타나는 정상의 모습은 우리를 환호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올라갔던 거리만큼의 내리막길을 달리며 그 열기가 식을 때쯤 우리는 아팠던 딱 그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산까지 이어지는 200km 가까운 지루한 낙동강 코스는 우리를 일명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도 가도 같은 풍경, 매점 하나 없고, 사람 한 명 없는 사막 같은 자전거 길입니다. 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지금 좀비에게 점령당했고 생존자는 아빠와 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부자는 오백리나 되는 좀비의 땅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부산 낙동강 하굿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몸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생기로 넘쳐나는 부조화 속, 광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잠은 아이의 손이 조금 더 듭직해져 있었습니다. ♪



합천 창녕보 인증센터

들돌의 귀환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 광주칠석고싸움놀이장학회장

초여름의 들판이 개구리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모내기를 위해 물을 가득 채운 논배미가 개구리 운동장이 되었다. 엄마의 무덤이 씻겨갈 것을 걱정하는 울음이 아니라 트랙터 소리에 놀란 아우성이다. 지구 온난화로 빨라진 모내기를 준비하느라 트랙터가 요란하게 보리논을 갈아엎고 있다.

춘궁기 보리고개를 넘기는 기다림이었던 보리들이 채 익기도 전에 하얗게 들들 말려 소 사료로 팔려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리 수확에 눈갈이에 모내기까지 일 년 중 가장 바빴던 들판이 황금 보리 물결 대신 하얀 비닐하우스 천지로 변하고, 떠들썩한 일꾼들의 모내기 축제는 이앙기와 트랙터의 홀로 노동으로 변했다. 젊은 날 고단한 초여름 농사일을 이겨냈던 늙은 농부들은 하우스에 앉아 고구마순을 따고, 논두렁에서 트랙터의 분투를 지켜보고 있다.

기계의 힘으로 짓는 농사가 편하기는 하지만 별이를 줄여 놓았고, 힘센 젊은 일꾼들을 도시로 내몰아 동네에는 힘쓸 만한 젊은 일꾼들의 씨가 마르고, 마을과 골목은 고적하다. 봄부터 여름 농사 가을 추수까지 상한가를 치던 동네 상일꾼

의 퇴조는 마치 모래 씨름판의 천하장사 대신 야구장의 기교파 투수와 타자가 자리를 채우듯 세상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마을에서 힘세고 부지런하고 충직한 상일꾼들은 동네 농사와 마을 대소사의 기둥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자부심과 함께 높은 보상이 따랐다. 그래서 전라도 농촌에서는 매년 음력 2월 1일 머슴날이라고도 하는 초하드렛날에 젊은 일꾼들을 모아 동네 마당에서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상일꾼과 큰머슴을 선발하고 축하했다. 하드렛날은 2부 리그의 작은머슴 꼬마등이 보조일꾼들이 1부 리그인 큰머슴 상일꾼으로 승진하고 스카웃 되는 스토브 리그 자리였고, 다른 마을에서 머



들돌



남구 칠석동 도창정과 들돌



들돌 유래비

숨살이하고자 온 장정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였다.

이 리그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 기준이 근력이고, 근력 테스트의 도구가 ‘들돌’이었다. 마을에는 쌀 한 가마, 반 가마 무게의 들돌이 널려 있어 마치 헬스장에서처럼 수시로 힘을 키우고 자랑하였다. 장정들은 들돌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가볍게 들고서 걸음을 옮기고,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넘기는 재주는 농사일에서 곡식 가마를 들고 옮기는 기본 동작으로 평소에 익히고 키워가야 한다.

초하드렛날 마당거리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막걸리 한잔에 기운을 돋운 장정들이 차례로 나서 1부 승격을 위한 ‘들돌들기’의 치열한 승부를 벌인다. 큰머슴 후보들은 들돌을 들고 비쩍비쩍 걸음을 옮기려다 쓰러지기도 하고, 들돌을 들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탈락하여 안타까운 한숨을 쉰기도 한다. 그러나 마침내 쌀 한 가마 들돌을 거뜰히 어깨에 걸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긴 뒤 기압을 세계 치며 등 뒤로 던져 버린 장정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올해의 상일꾼 자리에 오른다.

이어서 동네 부자들의 스카웃 눈치 싸움이 시작되고, 가장 두둑한 연봉 세경(歲經)을 제시한 부자집이 계약에 성공한다. 새주인은 흡족한 마음에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내어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고 새 상머슴은 소를 타고 동네 한

바퀴 퍼레이드를 벌여 머슴날 하루를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들돌놀이’는 유월 유두날, 칠월 칠석, 추석에도 즐거운 동네 놀이로 행해졌으며, 놀이가 끝나면 들돌은 마을 정자 옆이나 당산나무 아래로 돌아갔다. 그러나 경운기와 트랙터의 마력에 상일꾼의 근력이 대체 되면서, 들돌의 화려한 시절도 막을 내리고 잊혀졌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마을 하수도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이 시공창에 박힌 들돌을 파 올렸다. 들돌을 발견한 눈 밝은 어르신께서 깨끗하게 씻고 닦아내자 단단하면서 둥글고 매끄러운 옛 모습이 드러났다. 마을 사람들은 의견을 모아 받침대를 세우고 들돌의 유래를 새겨넣은 후 정성스레 들돌을 올려놓았다.

광주 남구 칠석동 245번지 도창정(稻倉亭) 정자 옆에 자리한 ‘들돌 유래’는 들돌과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칠석동 들돌의 유래는 혼한 자연석 돌맹이일 수 있는 들돌이 마을 주민의 풍속과 생활을 말해주는 증거이며, 전라도 농경사회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자의 말처럼 마을의 문화자원은 유용지유용(有用之有用), ‘쓸모 있는 것의 쓰임’만이 아니라, 무용지유용(無用之有用), ‘쓸모 없는 것들의 쓰임’을 발견하는 눈 밝은 혜안과 속 깊은 애정 속에 그 가치가 드러나고 지역문화를 풍부하고 튼튼하게 한다. ♪

어쩌다 오리탕은 광주의 대표음식이 되었을까?



전라도 음식은 한국 음식문화의 대표 주자다. 너른 들판과 해안에서 올라온 싱싱한 재료에 진하고 감칠 맛 나는 양념, 미감을 예술로 끌어 내는 손맛이 전라도 음식의 명성을 오늘까지 지속시켜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일본의 공예가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0~1961)가 쓴 전라도 기행문 『조선과 그 예술』을 보면 광주 춘목암 음식에 대한 극찬이 나온다. 광주음식의 명성은 조선 땅을 넘어 이웃 일본까지 번졌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맛의 고장, 광주의 대표음식은 무엇일까? 어떤 식당을 들어가도 기본은 한다는 이들도 있지만 광주의 오미(五味)로 알려진 음식은 한정식, 오리탕, 떡갈비, 보리밥, 김치다.

한정식이나 떡갈비, 김치는 전라도 사람뿐 아니라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 음식의 대표적 메뉴다. 그런데 오리탕은 좀 생소하다. 대체 왜 맛의 고장 광주의 대표음식으로 오리탕이 꼽힌 것일까?

광주 오리탕 거리의 형성

광주 오리탕의 역사는 역시나 오리를 키우는 오리생산지가 인접함으로써 시작됐다. 70년대 나주 금천에서 오리 농장을 하던 나씨 청년은 오리 수요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육고기를 대만에 수출하거나 통조림을 만드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던 그는 식당가를 돌며 오리로스 등 새로운 오리요리를 권장하며 영업을 했다. 그러던 중 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영광 출신의 식당 주인을 만났다. 그는 청년에게 자연산 청둥오리에 미나리와 들깨가루를 곁들여 먹으면 맛이 있었다는 요리 비법을 알려 주었다. 청년은 그 메뉴의 예감이 좋아서 당장에 오리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한다. 청년의 예측대로 들깨와 된장, 미나리를 곁들인 오리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장사가 잘된다는 소문에 오리탕 전문점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며, 유동 일대에만 30여 개의 오리탕 전문점이 생기면서 광주 맛의 새 역사가 써진다. 80년대 말, 유동 일대에는 그야말로 오리탕 전성시대가 펼쳐진다. 오리고기가 ‘건강음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오리탕 골목은 완전히 맛의 거리로 정착하게 됐다.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 비호감 음식은 얼마든지 호감으로 바뀔 수 있다. 어떤 음식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나 할까. 맛의 역사는 요리자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 워질 수 있으며 확장될 수 있다.

단일한 음식이 특정 지역에 군집해 있는 경우는 종종 있다. 곱창이나 횡집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은 오리탕이라는 메뉴 하나로 200미터가 넘는 거리를 형성하고, 수십 년에 걸쳐 맛의 명성을 유지하는 일은 드물다. 세대를 건너 맛으로 인정받아야만 수십 년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의 오리탕 거리는 맛집 군락의 새로운 역사인 셈이다.

200미터에 달하는 도로 전체가 오리탕 집

오리탕 거리는 중국일본인들도 이곳을 ‘관광코스’에 넣어 찾아올 만큼 이름이 났다.

오리탕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 이들, 오리고기는 냄새가 나고 느끼해서 먹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광주 유동 오리탕 골목에서는 밥 한 그릇을 쓱쓱 비웠다는 후일담이 많다.

“함께 간 사람들이 여긴 느끼하지 않다고 애써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믿지 못했다. 눈 감고 한 입만 먹어보라는 청에 못 이겨 입에 우겨 넣던 순간까지도 의심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국물과 고기 모두 비리지 않고 고소했다. 너무 조금 먹어서 제대로 못 느낀 걸까 싶어 한 손갈 더 떠먹어 봐도 마찬가지로였다. 고소한 맛이 났다.”

어느 방문객이 블로그에 올린 소감이다. 그렇다. 유동 오리탕 골목에서 맛보는 오리탕은 일단 고소하다. 질그릇으로 만든 냄비나 솥에 된장과 붉은 고추 간 것, 생 들깨 간 것, 마늘, 생강 등을 넣고 토막 내 살짝 데친 오리고기를 넣어 4시간 이상 끓인 뒤 된장으로 간을 하고 미나리와 대파를 얹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생 들깨와 생강, 미나리와 된장이 오리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고 한다.

바람 부는 날에는 유동 오리탕 거리를 찾으시라. 뜨신 탕국물로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싱싱한 미나리로 생기를 보충하고 나면 없는 힘이 다시 솟고 잊었던 용기가 불끈 난다. ♪

* 해당 내용은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 잘 알려주는 재단 오빠

김민표 부운영위원장, 변호사

“오빠가 알려줄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그 외 방법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

상속과 유언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권리와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없게 됩니다. 사망한 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 권리 등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1005조)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망한 자연인(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한 자(상속인)가 그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망이라는 자연적 현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승계된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사망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사인(死因)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의미하는데 유언자는 상속과 무관하게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증여이므로 그 대상이 반드시 상속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해져서 성립하게 되지만 유언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약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후 자기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유언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엄격한 형식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유언의 방식을 살펴보면, “자필증서”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서명 자서 후 날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종이에 유언의 취지 등이 기재된 전문을 기재하고, 유언이 작성된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한 후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녹음”의 경우에도 “유언자가 그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직접 구술하고 동석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유언하는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2명의 증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다시 이를 필기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됩니다.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증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의 4가지 방식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급박한 사유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녹음이나 공증 등 유언 절차에 참여하는 증인은 유언자와 친분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유언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유언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피한정후견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나열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유언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유언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유언자가 자필증서의 방법으로 유언한다면 자신이 직접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등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중에 한 개라도 빠진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유언을 나중에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을까요? 유언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유언자의 사망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 이전에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대리인에 의한 변경,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지 사회

김옥열 사진작가

왼쪽도,
오른쪽도,
앞으로도,
가지말라는 신호 뿐이다.
금지, 금지, 금지 사회.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





[재단소식]

2024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개최



2024년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1일(수)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사업예산 결산 완료 및 공모 사업 선정 반영에 따른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재단 조직 정비와 더불어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김윤아 운영위원(광주치매예방관리센터장)이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올해 사업은 기존의 재단 주요 영역별 사업을 유지하되 다가오는 20주년을 맞아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년 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2024년 재단 1차 운영위원회의가 3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bhc에서 열렸다. 김양균 위원장의 인사말로 열린 이번 회의는 박신영 부이사장님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각 위원들의 소개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조직 운용 건, 재단 주요 사업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안건에서 24년 운영위원회 운용을 격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부운영위원장 추가 선임은 운영위원장과 사무처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단 주요 사업은 24년 정기이사회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원활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재단 20주년 준비위원회에 적극 상정하기로 하였다.

2024년 1차 후원이사회 개최



2024년 재단 1차 후원이사회가 3월 29일(금) 오후 6시 30분, bhc에서 열렸다. 오형근 후원회장의 인사말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 후원이사회 조직 운용 건 △ 재단 회원 조직 사업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안건에서 24년 후원이사회는 격월 세번째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후원회칙 제 10조에 근거, 부회장의 추가 선임은 후원회장과 사무처가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4년 회원 및 조직 사업은 1차 정기이사회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매년 회원 및 조직사업의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던 재단 회원들의 자부심 제고와 결속력 강화, 실질적 참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회원사업 등에 대한 제언을 20주년 준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후원이사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4년 1차 편집회의 개최



2024년 재단 제1차 편집회의가 지난 4월 22일(월) 오전 11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김옥렬 편집위원장과 이현식 편집위원, 송재환 편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정기간행물 『창』 64호(여름호) 기획안에 대해 검토 및 논의를 가졌

다. 내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구성과 내용, 디자인 등의 변화를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창』의 발행 목적을 점검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 간행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로 하였다.

연구소 기획회의 및 자문회의 개최



연구소 2차 기획회의의 및 1차 자문회의가 지난 4월 23일(화) 18시 30분,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연구소 기획위원 및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행본 편찬 세부 실행계획 논의, 단행본 편찬 자문 의견 수렴, 2025년 연구소 사업 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번 회의에서는 단행본 집필 방향 및 구성 방안, 자료 선정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책임연구원에게 전달하고 연구소장과 사무처가 함께 논의하여 설정하기로 하였다.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준비팀 및 자문회의 개최



2024 세지광 기획 및 1차 자문회의가 지난 4월 25일(목) 18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주홍 감독의 사업설명 이후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주를 이루었다. 세지광 행사의 주제, 사업 목적, 재단 정체성의 부합, 참여자의 적정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증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사업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행사 규모에 따른 안전 강화 등의 제언도 나왔다. 이번 1차 세지광 자문위원회의의 의견은 이사회를 거쳐 변화를 도모하고 내년

축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다. 한편,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2021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금년 4회째를 맞이한다.

재단 창립 20주년 준비위원회 개최



지난 4월 29일(월) 18시 재단 사무실에서 재단 창립 20주년 준비위원회의 첫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주년 준비위원회 운용 방식과 20주년 기념사업 및 기념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었다. 20주년 준비위원회의의 위원장으로는 노경수 이사와 오형근 후원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조직은 편찬위원회(노경수 이사), 행사위원회(김양균 운영위원장), 재정위원회(오형근 후원회장), 세 분야로 나누어 구성하고 각 회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음 2차 20주년 준비위원회는 5월 27일(월) 18시, 재단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차기 회의 전까지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을 2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2024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성황리에 마무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주최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4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시민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광주정신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성대한 축제를 즐겼다. 시민작가로 참여한 김명화 씨는 "온 가족이 희망이란 빛을 채우고 온 행사가 되었다"며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에 오월정신이 필요하기에 이런 행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단은 앞으로도 올곧은 시민의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한희원 회원(화가), 한희원 작가 초대전

‘生, 존재로부터’ GIST 오룡아트홀서 열려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화가로 미학적 사유의 화풍을 추구하고 있는 한희원 작가 초대전 ‘生, 존재로부터’가 오는 6월 28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오룡아트홀에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초대전으로, 한희원 작가가 제시하는 죽음과 삶에 대한 논제를 작가 특유의 두터운 질감으로 그려낸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존재로부터’를 비롯해 ‘생과 기억의 파편’, ‘존재의 추상’ 등의 작품에서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와 삶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 <뉴시스> 발췌

박신영 이사(국제PEN광주위원회 이사장),

광주청년작가 문학포럼 문집 『광주청년, 문학을 만나다』 나와 국제PEN 세계한글작가대회(이사장 박신영)가 펴낸 『광주청년, 문학을 만나다』는 광주 문학의 미래를 여는 청년작가 한마당에서 발표된 다양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광주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의 글에는 문



태 소설가의 ‘5·18 소설, 내일의 과제’, 이기호 광주대 교수의 ‘광주 바로 옆자리’ 등의 글이 실렸다. ‘광주 청년작가 포럼-문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의 글에는 송기역 시인의 ‘독립책방, 마주침의 공간’, 이성한 시인의 ‘국제PEN과 번역사업’, 문은희 시낭송가의 ‘놀이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등의 글이 게재됐다.

박신영 이사장은 “이번 포럼집 발간은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진행됐던 광주 청년작가 문학포럼과 관련한 의미있는 글들을 담고 있다”며 “책 발간을 계기로 광주 청년문학과와 적극적인 문학적 소통과 접목을 매개로 광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향점 등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광주일보> 발췌

박주현 이사(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남대 박주현 교수, 한국문헌정보학회 ‘신진연구자상’



박주현 교수(왼쪽)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박주현 교수가 한국문헌정보학회 제1회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전남대 박주현 교수 ‘디지털 협력 수업이 독서 리터러시에 미치는 효과 연구’ 등 리터러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탁월한 성과를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들과 함께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박주현 교수는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정보 접근의 자유도 중요하다”며 “세계시민이 정보 접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발췌

노영기 연구소 기획위원(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여순사건에 대응한 국가권력의 작동’ 학술대회 열려

전남대학교 여수학연구원이 ‘여순사건에 대응한 국가권력의 작동’을 주제로 진행한 제5차 학술대회가 25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유족과 지역민 등 150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선대 노영기 교수는 '미군 자료로 본 여순사건'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여순사건은 정부와 미군의 주도하에 진압됐다. 따라서 미군 자료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정부와 미군의 개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미군 자료는 한국 측의 자료에 비해 봉기군의 규모나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살 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며 "미군 자료와 한국 측의 자료를 종합해야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여수넷통> 뉴스

임영언 이사(재외한인학회장),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사)재외한인학회대구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과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소장 윤재운)는 (사)재외한인학회(학회장 임영언),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원장 김동일)과 공동으로 26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창업관(B1)에서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초국적 실천: 유학생과 재외동포 정책교육 그리고 문화'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재외동포청, 한국연구재단, (사)재외한인학회,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북미래라이프대학의 후원을 받아 9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임영언 재외한인학회장은 "재외동포와의 글로벌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성(Koreanity)과 세계 시민성의 조화를 통해 세계 속 한민족과 한국 속 세계를 동시에 지향하는 재외동포 정책개발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프리존> 발췌

노성태 연구소장(남도역사연구원장) 광주시, 29일 민주역사 자원 발굴·활용 정책토론회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광주 민

주역사 자원 발굴과 활용을 위한 4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의 주역과 현장 등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역사학자인 신주백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규무 광주대 교수가 주제 발제한다. 토론은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과 광주 민주역사 정책자문 전담팀(TF) 위원이 참여한다.

- <뉴스1> 발췌

노경수 이사(광주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공동선에 힘 모아야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인식과 함께 사업시행자나 행정을 믿을 수 없으니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의 이익을 줄여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분양원가 검토는 도시개발 전

문화사인 L나 도시공사의 자문을 받았더라면 행정과 시민단체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이 늦어질수록 시민, 광주시, 사업시행자 모두 힘들어질 것이다. 민간이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사업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잘 추진되면 특혜 시비가 붙고, 힘들어지면 민간-공공간 소송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광주시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니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남도뉴스> 발췌

김상윤 고문(전 재단 상임이사,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마을 주민들이 땅까지 기부... 8년만에 문 연 윤상원 기념관

광산구와 윤상원기념사업회가 5·18 광주항쟁 50주년을 대비해 추진한 윤상원 기념관이 윤 열사의 고향인 광주 천동 마을에 지어졌습니다.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은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그걸 기억하잖아요... 윤상원 기념관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18이라고 하는 것을 윤상원 이름으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추진한 지 8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윤상원 기념관은 이번 주 수요일 공식 개관식을 갖고 참배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 목포MBC

함께하는 사람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회원

15년 이상

(주)이코랩 강경희 고영주 국형렬 김병기 김선주 김신희 김영수 김옥렬 김용남 김원중 김윤기 김 인 김재수 김종영 김지원 김현희 김효삼 남택승 박종남 백수인 서정훈 서희석 설영재 송광룡 송미선 송정민 신경구 신호상 양균화 양혜령 오권진 이기훈 이명규 이명자 이병선 이병욱 이선욱 이승권 이승재 이재석 이정록 이창권 이태홍 이형완 장주현 정경운 정민호 조성식 주홍 최광은 최영태 최은영 최정동 한희원 허 진 현석룡

10년 이상

강명호 규국호 권수용 김덕진 김 성 김영순 김인태 김종필 김홍조 김희송 나건용 류영국 문재철 박강배 백승현 서순복 송윤순 신 민 신재호 신준남 양태영 염낙귀 오미란 오형근 유현섭 윤만식 이대성 이문범 이상배 이상호 이선희 이연수 이향준 임중재 장성훈 정성구 정정례 조경희 조병갑 조영임 조영채 진시영 천득염 최주영 최 현 한정희 한주연 허달용 황병하

5년 이상

강 권 강신경 강지석 고금미 구용기 구종윤 김광욱 김기곤 김동규 김명술 김병균 김병완 김성환 김승원 김용구 김용철 김윤아 김은영 김일중 김재철 김혜선 김혜영 노성태 노영기 박광석 박대수 박범진 박상호 박신영 박은혜 박종찬 박철주 박흥근 손용만 송진희 신장용 안태선 안평환 양금숙 양동휘 양봉모 유방실 유병연 유우상 유정훈 윤영덕 윤영선 윤태병 이양재 이지은 이지호 이효원 임상봉 전운천 정광민 정성국 조광철 조영오 조오섭 주정민 진동희 천금영 천의영 최광희 최영만 최현택 최희용 한선 흥인화

5년 이하

(주)열린기획 강민구 강성욱 강성은 강 원 강지나 기영준 김경보 김단비 김득환 김민정 김범태 김병희 김성진 김성환 김성훈 김여정 김일섭김전승 김점진 김정숙 김 진 김현대 김희태 남승진 박귀숙 박병주 박세종 박수본 박종남 박종렬 승지나 엄도영 유용열 윤상호 윤영진 이경률 이경섭 이경훈 이다빈아 이동소 이명란 이상필 이승남 이승준 이영희 이이남 이정훈 이종연 임근종 임성화 임중모 장선정 장호준 정성일 정영석 정용택 정재봉 정정숙 조수빈 조용준 최금천 최유진 탁인석 허 경 흥돈석 황풍년

신규회원(2024년)

김경민 김광일 김대인 김민표 김성례 김영광 김은 김태암 김호균 나종대 노경수 류창선 문영태 박동훈 박미자 박선미 박은영 박은영 박철수박태균 변옥석 손명동 송재환 송진환 신정미 신정호 윤명국 이묘숙 이영숙 이용섭 이현식 임규근 장일준 하성흠 현명남

특별회원

구종윤 길광채 김국웅 김나복 김남수 김민정 김병연 김상윤 김 성 김성신 김성현 김연경 김영기 김영주 김영집 김원중 김윤기 김정숙 김종근 김하림 김향득 김현대 김 환 노금선 류재한 마형렬 문병란 박선정 박순보 박신영 박흥석 반상진 박주현 백형주 서명원 서정남 안순일 안종일 안진오 양명희 양형렬 양혜령 오형근 우운택 우제길 윤재국 윤태원 이계원 이근재 이상식 이정룡 이화성 임내현 임상봉 임성복 장기영 장두석 장휘국 정규철 정대영 정동년 정찬용 정태정 정현애 정환상 조원탁 조익문 지병문 지형원 차일현 차중순 천득염 최무진 최병관 최병근 최선령 최영준 최희용 허성관 허정 홍경표 황병하 황영성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

역대 이사장

1대 안진오(전남대학교 명예교수) 2대 오병문(제33대 교육부 장관) 3대 허성관(제6대 행정자치부 장관)
4대 문병란(조선대학교 명예교수) 5대 백수인(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부이사장〉 오형근 박신영 김양균 〈상임이사〉 김윤아 〈이사〉 김대현 김 성 김민표 김옥렬 김하림 노경수 노성태 류영국 박오주 박종찬 박주현 양봉모 오건규 이기훈 이연수 이철우 임영언 정현애 지형원 〈감사〉 윤만식 최희용 〈고문〉 김상윤 백수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부운영위원장〉 김민표 박홍근 주홍 〈운영위원〉 김경한 김기곤 김병희 김성례 김성한 김혜선 박주현 승지나 윤준혁 임영언 정성구 조수빈 진시영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부회장〉 박철수 이영숙 최형주 〈후원이사〉 고영주 국형렬 김동규 김병국 김용혁 김정숙 류창선 문영태 유병연 이명란 이현식 정광민 현명남 황재익

컨텐츠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기획위원〉 김광욱 김원중 노영기 류영국 송재환 이향준

창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편집위원〉 박신영 송재환 이현식

재단사무처

〈상임이사〉 김윤아 〈사무국장〉 이지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풀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후원안내

- 후원계좌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가기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회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진로나 진학, 학습방법이 고민이신가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진로진학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진로진학 상담센터 안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모두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드립니다. ”

- 고등학교 선택이나 진학을 위한 준비방법이 궁금해요!
 - **고입 상담:** 고입 준비, 고입 배치 안내, 고입 관련 상담
- 지금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앞으로 무얼 준비해야 할까요?
 - **대입 상담:** 수시, 정시, 면접 등 대입 관련 컨설팅 및 상담
- 공부는 잘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 **학습법, 교양:** 학습검사, 학부도, 양육검사, 각종 진로진학관련 검사
- 저가 관심있고 잘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 **진로 상담:** 직업 및 학과 탐색, 적성 및 진로검사
- 학교에 다니지 않아 진학정보가 없어요!
 - **학교밖청소년 상담:** 진학정보 제공, 지원전략 상담
- 우리 아이의 진로진학에 대해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 **학부모 진로진학 카카오톡:** 학습, 진로, 진학, 기타 학습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다문화가정이라서 대입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 **다문화가정 상담:** 대입정보 안내, 맞춤형 대입 상담

진로진학상담센터 위치



상담 문의 1644-8113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모두의 울림

PANSORI 판소리



2024.9.7.—12.1. 

15th Gwangju Biennale 제15회 광주비엔날레

Venues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and select locatio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광역시 일원
Hosts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주최·주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